

사설

동국학원의 위상찾기

지난 10월 31일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주최로 동국학원의 위상과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으나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애를 썼을 뿐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공통화 된 것은 동국학원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자리였다.

첫째, 종립학교관리위의 법인과 리 문제로 제기된 쌍방간의 견제와 불신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관리위는 학원설립자임을 내세워 점검·감사·감독해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재단·대학측은 설립만 했지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며(재단 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2.75%에 불과한 상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이 정도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무슨 간섭이냐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쌍방 모두 일리있는 주장이었다. 기본교육과정의 중비생들을 둔 안뜰고 위탁교육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종단과 재단간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산 불교병원 건립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

은 불자들이 병원 건립에 심시일반 동참하고 있고, 다른 종교가 병원 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조속한 회합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원측에서도 건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공간 범위 경영의 실적을 공개하여 경영의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국대학교 교수의 업적이 중앙일보 평가를 보더라도 20위 밖으로 처져 있고, 불교관련 학문 성과가 다른 대학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단·대학당국자와 교수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불교학의 산실이 되어야 할 동국대학교가 자기 구실을 할 수 없다면 동국대학교로서의 면모는 실추되고 교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잠복해 있던 양측간의 불화가 갑자기 현 시점에서 대두된 것은 잘못보면 불협화음인 것도 같으나 먼 미래를 내다본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는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쌍방 모두 대승적 입장에서 자기 점검의 계기로 삼고 불교종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야 할 것이다.

도난문화재 DB 구축

84년 이후 지금까지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는 473건에 이르고 최근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밝혀졌다. 매년 28건의 성보문화재가 도난당한 셈이다.

어쩌다 문화재가 도둑질되곤 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높은 정신적 가치, 뛰어난 예술성, 높은 학술적 성과를 나타내주는 더없이 귀중한 민족의 자산이다. 문화재는 단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 석굴암 본존불을 보며 우리는 그 고독한 눈매에 빠져 우리의 마음을 보고, 속진을 찾아낸다. 남산의 들부처를 보면서는 산하대지와 함께 어울어졌던 신라인의 삶을 본다.

경찰청이 도난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문화재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이다. 데이터 베이스에는 도난 문화재의 사진을 비롯 재질, 기법, 특징 등이 기록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난 문화재 회수율은 10%대 머물고 있다. 지난 9월 조계종 전남북 지역 교구본·말사 주지회의에서는

각 지방 경찰청에 도난문화재 전담반을 설치하라고 촉구한 이유도 저조한 회수율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이 난을 통해 마약, 밀수 등의 범죄에 대해 검찰청과 경찰청이 별도의 직제를 편성해 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문화재 도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재 도난 범죄는 이미 국제화되었다. 국내 도난 문화재는 국내에서보다는 외국에서 유통된다는 경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경찰청은 이같은 사실에 주목해 구축된 자료를 인터폴과 미국의 FBI, 영국의 도난미술품등록센터 등과도 연계한다고 한다. 도난 문화재 회수는 물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도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조계종 호법부에서 해당 사찰 주지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형식적 교육이 아닌, 성보 문화재 보유 사람들의 소임자들이 도난 예방과 관리의 전문가가 되게끔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암학사’ 어떻게 쓸까

승가대 대학원·사회교육원 설립 희망 종 단 스님·재가불자 수련원 복안

올해 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입주 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안암학사 활용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영남)는 10월 31일 회의에서 지난 5월부터 안암학사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온 실무팀을 해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김포학사 이전 실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결론 도출에 나섰다.

현재 안암학사 활용에 대해 중앙승가대측과 종단이 각각 다른 방안을 갖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승가대 측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대학의 현안인 일반 및 특수대학원과 사회교육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종단에서는 본·말사 주지 등 승

교육, 재가불자 교육 등 종도들의 수련원 및 연수교육공간으로써 한다는 안을 갖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승가학원 승가대학 실무자로 구성된 이전실무팀은 5월부터 4차례 모임을 갖고 안암학사 활용방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 이전대책위에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안암학사 운영권을 놓고 종단과 학교, 동문회의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종단에서는 중앙승가대가 종단에 의해 설립됐으며, 김포학사 이전과 관련해 예산의 대부분이 투여된 만큼 종단의 교육시설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안암학사가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재산인 만큼 소유권 뿐 아니라 운영권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동문회

는 소유권은 학교에서 갖되 운영권은 동문회에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김포·안암학사 활용계획(계성 상운 대원 원행스님, 기획실 박희승과장, 교육원 고명석과장 박용규과장, 중앙승가대 백영식기획과장 유승무교수 김창용 기획실주임)은 앞으로 매주 1회씩 3차례에 걸쳐 논의한 뒤 안암학사 활용에 대한 타당성 있는 안을 내기로 했다.

이점실무 소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안암학사 활용계획 최종안은 11월 마지막주에 열릴 예정인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원 고명석과장은 “그 동안 안암학사 활용방안을 연구했지만 종단과 승가대, 동문회간 입장차이가 커서 뾰족한 대안을 마련치 못한 게 사실이다”며 “김포학사 이전이 가시화 된 만큼 이달 말까지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비영리사업자 등록 사찰 보시금 10% 소득공제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찰에 낸 보시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5%에서 10%로 확대됐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찰이 소득공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으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찰은 세무서에 비영리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비영리 사업자 고유번호 신청서(세무서 양식)와 총무원 총무부에서 발급해주는 사찰등록 확인인, 종헌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정성운 기자

“관혼상제 포교활용”

포교승가회 포교방법 세미나서 제기

관혼상제 의례를 통한 포교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승가회(회장 종후)는 2일 중앙승가대에서 ‘21세기 포교방향 및 포교방법론 연구’를 주제로 포교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문화인 포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의 초점을 맞춰 포교방법론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승무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포교의 목적이 증생의 당당한 고통을 해결하는데 있고 그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존해 인간의 내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라면 불교식 관혼상제는 증생의 기쁨과 고통의 해결을 통한 넓은 의미의 포교 즉 전법활동과 연관된다”며 “한국사회의 상례례종 중에서도 포교에 가장 적합한 것은 불교의 재(齋)에서 비롯됐으며, 일과음식으로 묶는 염은 사찰의 절상과 신앙과 동일하여 불교문화와 내적 연관성, 그리고 문화적 적합성과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주장했다.

관혼상제 포교의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유승무는 △사찰의 의식공간 확충 △종단차원의 관혼상제식 제도화 △스님, 신도조직의 봉사체제 확립 △불교의례 집합 △불교호스피스 활성화 △남궁당, 위계방안소등의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성필스님(양평 관음사주지) “인생의 통과례인 관혼상제는 의식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갈수록 빈약해만 가는 가족들간 만남을 통해 해를 풀고 사랑을 다지게 하여 사회적 통합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개발, 편의시설구비, 소규모 남궁당시설 구비등의 불교적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김원우 기자

강원 교과과정 통일

내년부터 시행...필수·선택과목 확정

60년대 통합종단 출범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온 승가대학(전통강원) 교과과정이 통일돼 내년부터 전국 강원에서 시행된다.

전국승가대학(전통강원) 교직자연합회(회장 지오)는 1일 직지사서 실제 강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6명의 강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자총회를 갖고 강원교과과정 중 필수과목 선택과목 권장과

목 확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강원교과가 통일화돼 교육, 평가, 수계등으로 이어지는 승려 기본교육의 완결구조를 갖추게 된다.

교직자 총회에서 결의된 통일교과목은 필수과목의 경우 치문, 사미율의, 범법경, 인도 불교사, 불교학개론, 서경, 도서, 절요, 선요, 중국불교사,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한국불교사, 기신론, 유식종관, 화엄

경 등이다.

또 권장과목은 조계종사, 포교론, 종교학개론, 유전개설, 선종사, 참선실수, 불교교리발달사, 컴퓨터, 의식작법이며 범법경, 유마경, 아함경, 육조단경은 선택과목이다.

특히 강원교과과정중 필수과목의 확정은 전국 강원교육의 통일을 기하는 한편, 그 내용이 있어 그동안 일부 강원에서 실시하던 불교사 및 유식, 중관론 불교전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목을 공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제가 요청하는 승가위상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후보 첫토론회

14일 오후 송현클럽 수행력·종책 등 검증

태고종은 오는 23일의 제19대 총무원장 선출을 앞두고 14일, 원장에 출마하는 각 후보예정자들의 종책방안 등을 검증하는 자리를 종단사상 처음으로 갖는다. (본지 292호 3면기사 참조)

태고종 총무원장후보(회장 대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 후보들을 초청한 가운데 종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회장

대은스님은 “지금까지 종단의 총무원장 선출방식은 후보자들의 수행력과 종단 운영방안에 대한 인지능력, 종책방안 등의 사전 검증절차가 전혀 없이 몇 사람의 추천만으로 선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전제하고 “이번 제19대 총무원장 선거는 침체위기에 놓여있는 종단을 일으켜 세우고 빠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능력을 갖춘 총무원장의 선출이 그 어느때보다 긴요하다는 종도들의 여론이 비등해 원장 후보예정자들의 종책토론회

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선학원 대화재개 16개월만에 정상화 논의

조계종 법인대책특위(위원장 해창)와 선학원 현안실무대책위는 10월 30일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회의실에서 16개월만에 만나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

해창스님은 “선학원 설립 당시의 취지를 살려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선학원 대책위원 동진스님은 “선학원의 수계산립 개설은 도제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조계종과의 분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마음의 자유를...

2001학년도 전기 대학원신입생모집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불교대학원 [야간]
TEL:2260-3097~8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8(수)~11.17(금)

시험일시 2000.11.23(목) 14:00

시험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특 전 ●재학생 해외연수, 국내외 석사수련, 사회복지기관 현장실습의 기회제공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조계종 중무원, 공무원 정부부처기관 임직원, 사학교직원, 불교계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지도자과정 입학안내-야간

□수강과목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별로 선택하여 수강

□지원자격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급 임원, 불교계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불교계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불교계종단협의회 소속 재직승려, 공무원, 교직원등은 소정의 학비 감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11.8(수)~11.17(금)

□시험일시 및 시험방법: 2000.11.24(금) 14:00 서류심사 및 면접

인문정보대학원 [신입생·편입생/야간] TEL:2260-3722~3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모집전공 신문방송, 정보관리, 광고홍보, 출판편집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8(수)~11.21(화)

시험일시 2000.11.25(목) 14:00

시험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특 전 ●재학생 해외연수, 국내외 석사수련, 사회복지기관 현장실습의 기회제공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조계종 중무원, 공무원 정부부처기관 임직원, 사학교직원, 불교계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지도자과정 입학안내-야간

□모집과정: 불교지도자, 문화예술지도자

□지원자격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급 임원, 불교계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불교계종단협의회 소속 재직승려, 공무원, 교직원등은 소정의 학비 감면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13(일)~11.23(목)

불교문화의 성지, 경주에 불교문화대학원 탄생!

불교문화대학원 [경주·야간]
TEL:054-770-2394~5

모집학과·전공 및 모집인원

과	과	전	모
석사	불교	불교학, 선학	0명
연구	불교예술	국악, 불교미술	약간명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13(일)~11.23(목)

시험일시 2000.11.25(토) 14:00

특 전 ●각 시립 주지급 스님 및 불교단체 임원,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포교사, 국악인, 불교미술종사자, 예술단체 임직원 전생애에서 우대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재직승려, 공무원, 교직원등은 소정의 학비 감면
●본교 의료원(암·항암병환) 의료혜택 부여

지도자과정 입학안내-야간

□모집과정: 불교지도자, 문화예술지도자

□지원자격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급 임원, 불교계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불교계종단협의회 소속 재직승려, 공무원, 교직원등은 소정의 학비 감면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13(일)~11.23(목)